

오감 만족 꿀잼 선물한다... 나주영산강축제 10월8일 개막

정원·농업·스포츠 결합한 종합문화축제... 코스모스 향연·뮤지컬·K-팝 공연까지 총망라

전남 나주의 대표 가을축제인 '2025 나주영산강축제'가 10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나주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오감 만족의 꿀잼을 선물한다.

영산강축제는 생태·역사·문화를 기반으로 정원·농업·스포츠를 결합한 종합문화형 가을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2'를 주제로 콘텐츠, 편의시설, 공연 라인업 모두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K-브랜드 축제 관광도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만큼 올해는 더욱 탄탄한 구성과 체험 요소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번 축제는 '나주농업페스타(10월8일~12일)'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10월8일~29일)'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10월12일)'를 아우르는 통합형 축제에 준비했다.

나주농업페스타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한우 20% 할인 행사 등이 열리고, 전남 정원페스티벌은 정원 전시와 문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정원의

매력을 전한다. 축제 마지막 날 개최되는 전국 마라톤대회에는 1만200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풀코스, 하프, 10km, 5km 코스까지 다양하게 운영해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하다.

영산강정원 일원에는 28만㎡ 규모의 꽃단지를 조성했다. 특히 1억 송이의 코스모스가 만개한 장관은 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축제장 동선도 자연 친화적으로 구성해 영산강을 횡단할 수 있는 보행교(푼툰다리), 징검다리, 연꽃데크길을 통해 물위를 걷는 이색 체험이 가능하다.

올해는 '영산강 주제관'을 새롭게 설치하고 영산강의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시각적·체험적으로 소개하는 전시 콘텐츠를 강화했다.

개막일인 10월8일에는 영산강의 밤을 수놓을 창작뮤지컬 '왕후, 장화'가 개막 주제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나주 출신 고려 태조 왕건의 비(비) 장화왕후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번 축제의 중심 무대는 360도 아일

랜드 구조로 설계해 관객과 무대의 거리를 줄이며 몰입감을 높인다.

이 무대에서 열리는 '영산강 뮤지컬 페스티벌'에는 송가인, 린, 김용민, 박지현, 최정원, 마이클리, 카이, 아이비, 김효영 등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이 매일 밤 화려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쇼도 함께 열려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한다.

축제의 정체성을 살린 시민 참여형 공연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마을합창단, 영산강 전국 가요제, 이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영산강 물들락'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드러낸다.

어린이 가족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뽀로로·베베핀 심어콩쇼, 키자니아 직업 체험, 발룬버블매직쇼, 보드게임 체험존 등을 상시 운영하며,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세계 문화 공연도 마련한다.

특히 무선조정(RC) 모형 보트 대회는 영산강정원 내 호수에서 10월11일~12일 양일간 열리며 최고 시속 120km를 자랑하



는 레이스가 색다른 스티를 선사한다.

지역 소비를 장려하는 행운소비복권 이벤트도 주목받는다. 축제 기간 나주 시내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관광객에게 즉석 복권을 제공, 최대 100만원 상당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가족 방문객 대상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광군, 신뢰받는 허가행정 추진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운영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복합 민원 개선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 하고 있으며, 민원실무심의회를 통하여 업무절차 간소화는 물론 서면심의 대비 평균 5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사업 기간 만료 1개월 전 허가의 변경,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고제 도입으로 허가 현장 관리강화는 물론 민원인들이 변경하거나 취소신청을 위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을 줄여주

는 효과가 크게 증대되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복합 민원 처리지원은 군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해주시고, 협의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내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진행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허가행정 진행사항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절차 미이행에 따른 피해 예방 및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가을 날들이 절을 맞아 식중독 사전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중 유통식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 수산물 중금속 여부 등을 검사해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있으며,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추석 명절 대비 떡류, 참기름 등 명절 성수식품 판매·

순천시, 가을철 환절기·한가위 맞아 식중독 예방 총력

성수식품 등 집중 위생점검으로 시민건강 안전지킴이로 나서

제조업소 14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집중 위생점검을 진행 중이다.

가을철은 일교차가 크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 감염 우려가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육류는 75℃ 이상

에서 충분히 익히고, 채소류는 물로 3회 이상 세척하는 등 조리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음식은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며, 이동 시에는 부침류 등 조리된 음식이 10℃ 이하로 유

지될 수 있도록 아이스박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안전한 식품관리를 통해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함평군, 외국인 노동자와 '상생'하는 일터 문화 조성 앞장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 성료... 건전한 근로환경 구축 나선다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역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권의 보호를 위해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함평군은 지난 11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 존중을 통한 상생의 고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교육에는 관내 계절근로자 및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노동인권 전문 강사가 ▲근로기준법 주요 내

용 ▲임금 체불 및 근로시간 준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차별 없는 대우와 인권 존중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교육과 상담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희망업소 추가 모집

무안군, 업소당 최대 200만원 지원...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 무안군(군수 김삼)은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외식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입식테이블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트(식탁 1개, 의자 4개)당 최대 10만 원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존 지원을 받은 업소도 최대 20세트 한도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좌식테이블이 있는 업소로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여 9월 30일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450-5018)으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국제 및 지방세 등 체납업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삼 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객 접근성과 위생 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쾌적한 외식환경이 조성되어 고객과 영업주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외식업주의 경영 부담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무안군 제공

'세계 최장기간 운영' 장성아카데미 30주년 기념 포럼

'함께한 30년, 함께할 미래' 주제... 강대중 서울대 교수, 가수 선 특강

장성군 고유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장성아카데미'가 15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0주년 기념 포럼을 열었다.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30주년 기념 영상 시청과 기념사, 축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축하 공연은 '빛춤'이 맡았다. 대북, 부채춤 등 전통 콘텐츠에 화려한 LED(엘이디) 조명 효과를 더해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비전 선포식에 선 사회자가 '함께한 30년'을 되짚어 찾은 '함께할 미래'로 화답했다. 동시에 선포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대 화면 속 '버튼'을 눌러 축하 이미지를 표출했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강대중 서울대 교수가 '배움, 세상을 잇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아 지역사회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려냈다. 강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육학 학·석사학을 거쳐 조지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5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하고 있다.

2부에는 가수 선이 강단에 섰다. 1997년 합창 듀오 '지누션'으로 데뷔한 선은 이후 꾸준한 봉사과 기부를 실천해 왔다. 누적 기부액만 57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기부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연예인이다. 루게릭병 투병 끝에 소천한 박승일 농구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박 선수와 함께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했고, 올해 승일희망양 병원을 열었다. 이날 선은 '나눔, 사랑을 잇다'라는 주제로 나눔을 통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1995년 9월 15일 문을 연 장성아카데미는 30년 동안 1200회가 넘는 강연을 개최하며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대표 모델로 발전해 왔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장성아카데미의 모토를 이어받아, 앞으로도 군민 삶 속에 따뜻한 배움을 전하는 성장의 동반자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색감처럼**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갈 같은 **알려고 싶은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에서

기억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알았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한 것**

몇 장이나 될까, **색감처럼** **만드신 거** **기려할 것.**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화적인 **필연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미래의 현재가 **가득한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았다**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행복**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한**

좋은 거라면 **가득한**

은 언제나 **우연**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